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 1、教會에 革新을
- 2、社會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제25회 총회를 앞두고

나의 소감

김 덕 성

우리는 지난해 선교60주년 기념식전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하여 재일60만 동포의 구명운동을 위하여 총력기 할것을 다시한번 다짐하였으며 이것을 추진 시키기 위하여 선교10개년 계획실행위원회를 발족시켰던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금번 제25회 총회야 말로 그첫발을 내딛는 총회로서 그 의의가 깊다고 생각하여 총회를 앞두고 나의소감 몇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1 전도활동의 강화

복음 전파야 말로 우리 신자에게 가장 높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교직자인 목사는 물론 신도들도 선교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엄숙한 의무가 있으며 복음의 선교가 크리스찬의 첫째 사명이니 목사 한사람 에게만 전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맡기지 말고 신도는 다 전도인 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선교에 매진 하기를 피차가 힘써야 한다 총회에서 전도활동에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어느 계획보다 전도활동강화를 우선하여야 하며 전도비를 쓰는데 인색하지 말자는 것이다 각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나가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청년의 신앙운동과 2.3세 교육강화

앞으로 재일대한기독교회를 걸머질 청년들이 건전하게 신앙이 자라나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바른방향을 지시하며 모든힘을 아끼지않고 강력한 지도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과 2 3세교육에 실패하면 우리교회의 앞날의 장래가 우려되는바 보다더 용단을 가진 청년지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한국기독교 회관 설립

세째로는 우리가 염원하여오던 기독교 회관을 大阪市 生野區지방에 설립하는 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자는 것이다 세밀한계획과 믿음을 가지고 힘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것을 믿는바이다 우리는 이 기관 설립을 성공시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보다 더 나은 봉사의 터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4 교역자 인사 이동문제

오늘날 재일대한기독교총회의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호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회에서 교역자와 신자사이 서로 사랑과 존경을 잃고 피차간 감정에 뒤섞여서 참말로 해야할 선교사업에 정력과 모든 정신을 쏟지 못함으로 교회

는 약화되고 불평불만 속에서 침체되어 있으니 어찌 교회의 참된발전과 부흥이 있을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며 활기있는 교회가 될수 있겠는가 목사는 성직자이며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귀족이 아니며 교회를 위하여 야하며 교회를 위하여는 사심없이 언제나 용단하여 떠날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전배목사님들은 이점에 더욱 유의 하셔서 젊은 후배 교역자들에게 좋은 시범을 보여주기 바라며 젊은 교역자들을 추진으로 잘 양성하는일에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젊은교역자들에게 끝까지 존경의 대상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젊은교역자들은 항상 근면함과 충성된 충으로 폭넓은 지식과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능력있는 중들이되어 언제든지 세대교체를 물려 받을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교회는 또한 젊은교역자들을 잘기르는 배려를 가지고 교회가 훌륭한 교역자를 만들어내야 할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인사 이동은 지방 전체적인 고려를 가지고 좀더 설득력을 가지고 임하여야 겠다

오! 성령이여 이번 총회에 강림 하옵소서 아멘

(福岡교회목사)

책을 세워 이 좋은 기회에 대중전도와 개교회 전도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春木교회는 泉大津에 예배처 준비를 위한 보조요청은 총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 서 남 지 방 회

9월 23일 오전11시부터 折尾교회에서열려 총대 7교회 대표 24명이 모여 다 음과 같이 열렸다

신임직원
●회장 홍영기 ●부회장 한재수 ●서기 김득삼 ●부서기 최창화 ●회계 최영모 ●부회계 김기현 ※전도부장 김덕성 ※교육부장 김형식 ※청년부장 김득삼 ※부녀부장 한재수 ※후생부장 이선조 ※치리부장 홍영기
지방회에 관한 현의안가결 임직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함과 회장은 순번을 고려하여 선출하자는 안을 가결함
총회에 제출하는 요청안 현의안

총회내 각교회의 교역자 이동을 원활히 하며 은혜롭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임원과 4지방회장으로 구성하는 인사 위원회 설치를 현의했다

김안홍목사 위임식

豊橋교회의 김안홍목사는 작년 60주년 기념 총회시에 안수 받았으나 豊橋교회의 증축과 목사관 병설공사의 완료 부채완납까지 기다려 오던바 지난 9월23일 중부지방회 대회를 마친후 오후 7시에 위임식을 당회장 백남철목사 사석하에 거행되었다

지방회장 박명준목사의 양의 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구주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목회하라는 말씀이 있은후 박희삼집사가 41년의 역사를 가진 豊橋교회의 약사소제가 있었고 김기춘집사의 증축회계보고가 있었다 내빈축사에는 총무 이인하목사가 있었다 그후 각처에서는 축문축전의 피로가 박성근집사로부터 있었다 내빈으로서 본국서 오신 황강은 조덕현목사와 캐나다에서오신 中村다미코여사와 유석준장로도 오셨다

각 지방회 개최

◎ 중 부 지 방 회

9월 23일 오전10시에 豊橋교회에서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신임원 선정과 결의 사항이 통과되었다
●회장 박명준 ●부회장 백남철 ●서기 박현섭 ●부서기 김승준 ●회계 김병기 ●부회계 김광수 ●전도부장 백남철 ●교육부장 김승준 ●청년부장 김안홍 ●부녀부장 신영자 ●후생부장 서영균

결의된 안건과 활동방침은 다음과 같다
岐阜교회 토지 구입권과 大垣교회 교역자 요청권은 총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활동방침에서는 청년회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후원과 주일학교 교사양성 강화와 개최와 전도에서는 개체교회에서 전도임원을 선출하여 개교회의 전도 의식을 복도등과 동시에 축호 호별 방문등에 힘쓰기로 하였다

◎ 관 서 지 방 회

9월 9일 오전10시에 北

서늘한 가을철을 마치고 재일대한기독교회는 10개년 전도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변화해가는 사회에 침투할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갖추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있는 요즘 각 지방회가 열렸다

◎ 관 동 지 방 회

9월 25일 10시에모인 관동지방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임원의 선정과 활동방침이 결의 되었다
●회장 오윤태 ●부회장 맹철희 ●서기 김계호 ●부서기 강중구 ●회계 권태악 ●부회계 이영흥 ●전도부장 맹철희 ●교육부장 이인하 ●청년부장 이태우 ●부녀부장 심은택 ●후생부장 윤판병

결의로서는 지방회 활동의 재정확립을 하기위해 위원회를 조직하여 적극 모금 하기로 하고 그 위원장에는 김한필장로가 피선되었다 다음은 입국관리법을 비롯하여 교회가 사회책임을 가지는 의미에서 새로운 방안을 세우도록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을보았다

部교회에서 총대 64명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신임원과 활동방침의 결의를 보았다

●회장 전영복 ●부회장 김정환 ●서기 유석준 ●부서기 최경식 ●회계 김판옥 ●부회계 김만준 ●전도부장 김원치 ●교육부장 이창우 ●청년부장 배기환 ●부녀부장 정인수 ●후생부장 김재술 ●시찰부장 이종현 ●시취부장 안영준 ●치리부장 전영복

결의사항에서는 북부교회장으로 장림을 1인 허락과 청년회에 18세-25세까지의 연령회원과 26-35세까지의 연령을 구별하여 연령이 가까운 청년들끼리 그룹을 조직하게 하여 다소 나이차 있는 청년들 사이의 운동이 더 긴밀하게 되기를 바라와서 이러한 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더구체적이며 능률적인 조직이 되기를 바라는 상정안이 결의되었다

60주년 기념 개척전도로 단기 선교사를 마치고 전도 개시된 岡山전도소가 신도 13명으로 정식 승인을 받게되었다 활동방침으로는 명년도에 大阪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에는 적극적인 후원과 전도의 대

— 11월 월례회를 위하여 —



영혼의 양식

감사기도 I 데살로니가 5:18

우리는 항상 모든일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목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으로부터 먼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앞서 계신다는 것을 잊을수 없읍니다 이렇게 생각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감사에서 부터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진정한 깊이를 갖어오는 때는 마치 암굴의 나래속에 파묻힌 제란같이 하나님의 은혜안에 완전히 싸 안긴 때이라 하겠읍니다 그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회의 기도와 함께 감사의 기도는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 쪽이라도 없을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감사의기도 감사의 찬양을 하기에 오늘날 너무도 어려운 고난속에 우리가 놓여있지않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큰 일을 이룬이들은 안일 한 때보다 오히려 역경속에서 더욱 참된 보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신앙의 시인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도라온 후 그 위험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배운바를 감사 하며 노래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맞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요긴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참된 감사는 참된 믿음안에 거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임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렇게 믿는다는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아주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일을 주께 맡기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피로한 때나 범사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사랑안에 있는 자들의 감사는 그저 달콤한 입설만의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골로새2:7)로써 더욱 비장한 것입니다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도 감사

하지만 중하가 양 어깨를 누를 때 고난의 한 복판에서 오히려 고요이 감사기도를 드릴수 있는 오히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죽음의 영역을 넘으신 대능의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보다더 원만하게 형제를 용서 하며 사랑하며 이웃에게 대하여 더욱 온전한 봉사 생활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전한 믿음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주님을 힘입어 범사에 감사 하는 생활로써 저희의 주위를 날마다 밝히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 하여 기도 올리나이다

아 멘
(여전도회 총무 이영숙)

있었다
그의 가지가지의 뜻있는 순서로 성대히 끝냈다
신역원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김주일 ★회장 오선비 ★부회장 강필배
★전도부장 이애신 ★교육부장 김향운★후생부장 손갑순 ★찬조부장 박수규
청년부장 김옥례★서기 정순희 ★부서기 조순일

서남지방

하기수양회

해마다 열리는 서남지방 하기수양회는 지난8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大分県 由布院이라는 조용한 온천지대에 있는 山水館에서 개최 되였는데 서남지방 각교회에서 50여명이 참석하여 은혜스러운 수양회가 되였다고 한다

특히 금번 수양회에는 宇部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한재수 목사님이 특별강사로 수고 하셨으며 제목은 《새로워지는 교회》였다고 한다 시간마다 은혜가 깊았으며 서남지방 여러목사님들도 새벽기도회와 만도를 인도 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는데 교직자와 신도들이 일치 협력하여 모든 힘을 기울일것을 다시 한번 다짐 하였다고 한다



창립 15주년 기념과 16회 정기대회

관서지방여전도회 大阪北部교회에서



졌다
제일 선교사업에 큰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본국대표 조덕현목사의 축사와총회안에 나이 많으신 아버

지되시는 이종현목사의 축사와 가나다여전도회 대표로 백인도 목사의 축사가 있었고 관서지방 신도회대표로 이소용집사의 축사가

신도를 찾아서

(5)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교포의 계몽에 힘을 다 할 터예요
平野교회 정혜자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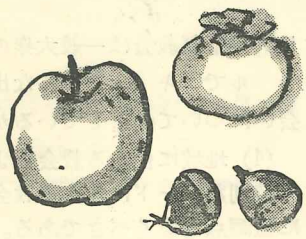
이번달에는 大阪총영사관에 정혜자양을 찾아갔다
오후4시가 지난 무렵였건만 아직 근무중이라 인터뷰를 하는데도 전화를 받는다 이것 저것 바쁘게일을 하고있다
왜 본국의 대학에 유학을 했느냐구요? 그건 제일의 이유는 자기 나라를 알기 위해서지요 즉 한국인으로서 우리말 풍습 모

든것을 배우려고 한거예요
정양은 平野교회 정인수목사님의 따님이다 梅花여자고교를 졸업하고 본국의 이화여자대 가정과를 졸업하고 와 지금은 총영사관에서 여권사무를 보고있다
모국에서 배우고 온것을 자기만 간직해 두는게 아니라 모르는 젊은 교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지금 大阪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과 금요일 平野교회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국어강습을 하고있다 또 가끔 토요일에 요리강습도 하고있다한다

제가 크리스찬 었다는이 은혜로운 것을 새삼스러히 느끼것은 본국에 있을때에요 말도 잘모르고 아는사람도 그리없고 고독했을때 저와 같이계시고 힘을 주신건 역시 주님였어요

한국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해나가는것은 우선 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금후 더욱 시간이 있는대로 강습을 계속하며 또 교회의 활동도 하고싶다 하여 이후의과제를담복잡어지고있다



京都教会を辞して

田 永 福 牧 師

9月末で、21年1カ月の京都教会牧師の仕事を若い働人に譲り、総会宣教10カ年計画の総幹事として働くことになった。これから10カ年、1978年の宣教70周年を目指して、在日60万救霊の重責を担うことになり、老骨に鞭打って、新しく立上らねばならない、神これを嘉し給うことのみが、只一つの頼りどころである。21年間の京都教会牧師の生活は、伝道生活40年の半以上の長い才月であった。40才で京都に来て、61才の老境に入り自分ながら、よくやって来たと思う。過ぎ去って見て、神の聖前に功罪の相半ばするを思い、肅然とせざるを得ないこれが又人生でもあり、人間の何うしようもない姿でもある思う。然し思い返されることは、神の恩寵の余りにも深く強いものであったことと京都教会で愛されたことの余りにも貴いことであった、何うしても自我から抜け切れなかった欠陥車のような牧師をよく赦し愛し立て、一人前の牧師として仕事の出来るようにしてくれた信徒諸兄姉の前に衿を正して謝辞を呈し、体の隅々にまで沁み込んだ京都教会の愛を貴い宝として大切にしまひ込んで置きたい。何時とはなく身についた京都の牧師と言う体質は一朝夕で更えることは出来ない。然し只一つ、京都と言う限られた責任感から、60万、又韓民族4000万へと急速に視野をひろめ心を注が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ことが、今の自分に取って大きな転還である。潜越だが世界又異邦人への使徒であったパウロを、いつも送り出し迎え入れたアンテオケ教会の

古事に倣い、京都教会がこれから、牧師をこの世へ送り出し又迎え入れる教会になってほしいと思う。自分をそうしてほしいと言うのではないが。

さあ、これから、時代は急テンポ、コンピューター時代である。こうした歴史の真只中に福音の役者として立たせられ、韓国教会の牧師と言う制約と共に具体的な責任を負わされ、宣教10カ年計画と言う重い荷を担わされた者として、何かしたい、何れだけ出来るか、等の感情が錯綜する中で、京都教会21年、やりたいだけやって来たと言う喜びをこれからの生き甲斐とし、随分と失敗もした、と言う自省を貴い教師として、一声高

くいななく駄馬、面映い顔をそれでも真直ぐ、キリストに向け、輝く復活の主が、行く先に立って居られるのに、意気込みつつ、さっそうとしてでなく一口一口と歩み出されんとしているのである。高機敷の諸兄姉の強い応援こそ望まれて已まない。

新住所 京都市右京区下津
林佃5番地の72
(10月中旬から)
田 永 福

強固な民族意識を

公開講演会

去る 9月21日（日）関西地
方信徒会主催によって、公開

講演会「在日韓国人の明日を
めぐって一歴史を顧りみつつ」
の主題のもとに大阪教会で
開催された。

午後の部は、張曉講師によって、1 時間半熱のこもった講演がなされた。民族意識の回復が何よりも先決問題と語られた後、日本人を含めた討論会が活発にくりひろげられた。≡反日教育云々≡≡否正しい歴史教育云々≡≡帰化云々≡と青年、婦人を含めた全信徒約 150 人が思いを新たに展開され、時間のすぎるのを忘れた程である。信徒会が、こうした公開公演会が主催されたことは特記すべきであり教会の革新を全員で取り組む姿勢の現われであるとして、観迎された。更に夜は、午後 7 時半より 180 名の参席があり信徒会連合礼拝が行われ韓国ソウル韓一教会曹徳鉉牧師の説教があり、続いて、第二部の講演が張曉先生によって教育問題を中心になされ 9 時 40 分、多大な成果を得て幕を閉じた。

und Fall, 1958

4. Bonhoeffer Nachfolge,
1958

5. Bonhoeffer Ethics 1955

6. Bonhoeffer Life
Togetteer. 1958

7. Bonhoeffer Widerstand

8 Bonhoeffer Desaynelte

8. Bonifacius Desawilente Schriften

Bd I—IV	Band I	1958
	Band II	1959

関連青年の
野外礼拝

9月23日 私市（きさいち）ハイキングコースで、関西地方の青年による連合野外礼拝を、青年会関西地方連合会の主催で開けられました。小人数ながら、崔忠植講師を迎えて礼拝をし、昼食後、フォークダンス・花嫁・花婿捜（等の楽しいゲームで一日があっという間に過ぎてしまい、お互いに別れる間際までゲームを楽しみあごが外れそうに本当に楽しい交わりの一日でした。

Band III 1960
Band IV 1961

II Secondary Sources

1. Dobsey, The Theology of Dietrich Bonhoeffer 1960
2. Mastly, The Place of Bonhoeffer, 1962
3. Mastly Religion and Social Couflict, 1964
4. 鄭賀恩 雜誌「現代斗神学」1965
5. 高範瑞 「(基督教思想) 1966.3
6. 倉松功 D Bonhoefferの神学理解の一試図
東北学院大学論集44号
1963.12
7. 熊野義宣「福音と世界」
1957.9
8. " " " " " " " "
1964.7
9. 森平太 服従と抵抗への道 1964

III Geueral Sousces は省略

訪問伝道懇談会

関西地区

去る6日、大阪教会にて関西地方会伝道部と韓国家庭文書宣教会日本支部との共催で各教会の文書連絡委員、伝道委員32名が集まり、懇談会が持たれた。訪問伝道は、教会形成にとって大きな位置をしめ、キリスト者の使命であることを学んだ。牧師と信徒との祈りの交わりが組織的になされる時に成果があることも知った。今日の我々の教会の体質は、この点が非常に欠けていることを反省させられ今後伝道に対して深い配慮と熱意をもって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知った。講師に日本全国訪問伝道連合会副会長 中路嶋雄牧師を迎えて行われた。

信徒会英会話

毎月第2 第4土曜日 後7時
大 阪 教 会

講師 マツキントシユ

聖書研究

每月第2火曜日 午後7時
講師 崔 京 植 牧師

聖書研究のあとで信徒会の役員会があります

多数の参加を乞う。

10月20日(月) 時：午後 7時

所：日本キリスト教団東梅田教会

今日の人権問題をめぐって

講師 李 仁 夏 牧師

踏みにじられ引きさかれた人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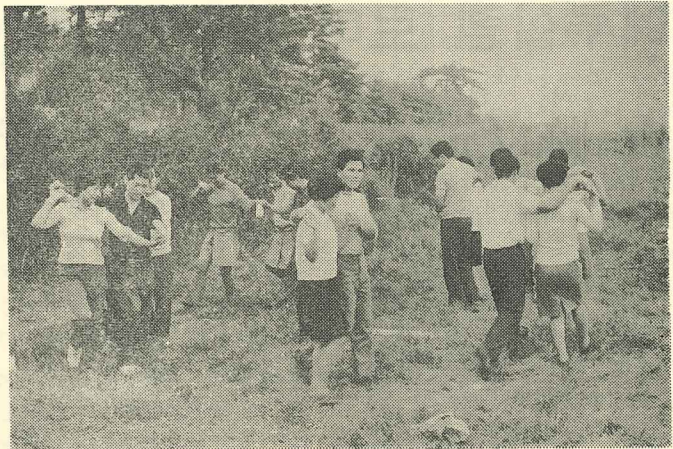
一日本人の体験から 田 永 福 牧師

主催 在日外国人の人権を守る会 発起人

これは自己防衛として、緊急な時にのみ可能なことであって、たとえ絶対的必要性だと云えども、権利としては見る事は出来ない。このような点では、彼の暗殺計画参加はもう少し忍耐を持って耐えるべきではなかったろうか。我々が客観的に見て、もしも、ボンヘツファーの行動が不必要であり、利用され、誤りを犯し、罪を犯したとしても、神の前に於ける徹底的自己責任感より出て来た彼の民族に対する愛そのものが、彼の行動全体を弁護し、完うせしめ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のである。しかし、罪は罪であり、罪として、彼はこれに対して、自らの生命を以て、償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ある。しかし、彼はあの御国を望み見つつ悠々とこの世を去って行ったのである。暗殺を除いて彼のような生き方、態度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これがキリストの生き方の現代版とも思える。(終り)

参考文献

- I Priwasy Sources
1. Bonhoeffer, Sanctosum Communio, 1960
 2. Bonhoeffer Akt und Sein, 1956
 3. Bonhoeffer Schopfung





聖 書

霊的飢渴への責任

ヨハネ 7:37~39

1) 祭が七日間行われるのが慣例であるが(レビ23:36~39民数29:35) 大事の終りの日とは八日目の日であろうと思われる。祭の七日間はテントの中の祭壇の西側にある水がめは一杯になるように水をくんでおいて、参拝客には水がきれないように置いてある。ところが八日目にもなると水が足りなくて水を求める人が多いように推察される。この時に主イエスは、「永遠に渴くことのない水が一杯あるから来て思う存分飲むがよい」といわれた。これは勿論、肉の飢渴を通して霊的な飢渴を教えられたのである。ここで主イエスが立って呼ばれたという動作は、霊的な飢渴に気づかないで肉の飢渴を問題にしている人々への激情をあらわしたものである(マルコ8:14~21)。

2) 主イエスは貧乏や飢えかわきに対して神の国や永遠の生命との関係において解決されるのであった。試みるものに対して、「人はパンだけで生きるのみでなく、神の口から出る一つ一つの言で生きる」と言われた。(マタイ4:4) スカルにあるサマリアの女の人にも水を下さいと頼んでおいて、永遠の水である福音信仰のことにまで及んだのである。(ヨハネ4:14~15)。奇蹟を見て主イエスについて来る群に対して、「朽ちることのない永遠の生命に至る食物のために働きなさい。私が生命のパンである。私を信ずる人は飢えることも渴くこともない」と言われた(ヨハネ6:26~35)。私たちは肉の飢渴が肉的方法で解決さ

れるのではなく、神の国との関連性において解決されることを知るべきである(マルコ2:5)。

3) 今日あまりにも社会問題に対して一般社会の考える方策だけで解決しようと走りまわって多忙をきわめて、霊的な飢死者の出るのを気づかずにおることに怒りをこめて書いた文章を読んだがまさしくその通りである。すべての問題はこのキリストの救いの業によらなければだめである(第1

コリ1:23~24)。霊的な欠乏が今日の多の悲惨な事件を生んでくる。体は一つであるが多くの肢体からなっていて一つの肢体が病んでも全部の肢体が痛むのである(第1コリ11:26)。まして、人間の最も根底をなす魂の不安がどうして正しく生きることが出来ようかと反省すべきである神の言によって、この霊的な飢渴への責任を感じて宣教に励みましょう(行3:6)。

(西成教会 金元治牧師)

講 演 第 4

——新しくされた教会のしるし——

…… 於 60周年記念 教職者研修会……

これは在日大韓基督教会のむこう10年間の実践目標のうちでも最も大きな障害物の一つである。人々を特に青年達が日本人の間で住んで、その文化にあずかっているところを無理に小さな韓国人のゲットーに押し込め、これが福音の自由であると語ろうとするだけでは十分でない。狭い個人的な改心へ強調点をおくことは実にわれわれの時代の生へと完全に参与することをさまたげる福音の歪曲である。社会における人間の生は相互依存の、くもの巣のようなものである。神への改心は人人に仕えることへの方向転換である。

(2) 他者のための教会の第二の目標は協力教会(チームミニストリー)を増やすこ

とである。教会についての重要な人々をもうける式の考えは時代遅れである。出エジプト記にあるように重要な人として自分を理解していたモーセは、まさしくそう考えていたからこそ約束の地へ入ることを許されなかったのである。他のすべての人に無頓着で会員を鉄の手で治める牧師にはもう場所がない、協力教会は、いたる国で広がっている。そしてそれはグループ訓練とよりすぐれた専門化を強調している。社会事業家とキリスト教教育の専門化、そしてまた都市の問題の中で特別に訓練された人は現代の都市でのチームワークの一端を荷う。状況に応じた特技と経験と確信を持った平信徒とチームを持つことから、も

っとすばらしい評価が引き出される。われわれはいろいろ異った訓練を持った働き人のチームを作りあげることと各個教会員の働きに関係を持つ共同の能力を引き出すことを学ばねばならない。

(4) エキュメンカルな協力は他者のための教会のもっと進んだ目標である。すでに与えられた都市における教会員はあらゆる分野で、彼らが別々には出来ないことを一諸にするために共にグループを作っている。これらは同じ教派内における教会員であるかも知れぬが、大抵は教派間の境界線を切りくずすであろう。今日の世界の巨大な都市中心地では教派主義は終りを告げた。教会は時代の雰囲気を見抜き、効果ある宣教のために一諸にならねばならない。在

日大韓基督教会は一般大衆のレベルでエキュメンカルな出会いについて何をしているか

(4) 地域に仕える教会員より特別なニードに仕える牧会に強調点を置くべきである。それは問題中心式であり、あるいは住宅を中心とした牧会というよりも事柄を中心とした牧会である。我々は地区の教会と住宅地にある教会員については実施することよりももっと知っているが、産業にたずさわっている人々や社会的に差別をうけている犠牲者や失業者のニードは知らない。これは教会員を持たないで学生、中毒者、希望のない青少年や高層アパートの住民と共に働く牧者を必要としている。

(M・ランサム牧師)

1970年度 青年会全国協議会

中 央 委 員 決 定

9月5・6の両日、京都教会に於いて、恒例の青年会全国協議会が開かれ、前年度代表委員 鄭利一兄に替って、今年度は代表委員 崔秀徳兄はじめ、13名が委員として選出されました。

活動方針として、一には我々の戦後の教会史総括を二には、将来に対する教会の創造的歴史の確立を上げていますこれは、宣教70周年に向けての標題を実践するためにも、欠かすことの出来ない事業であると信じます。

中央委員会 名 単

代表委員 崔秀徳(東京教会)
総務部 崔勝久(川崎教会)
書記 金芳植(川崎教会)
渉外 趙誠夫(名古屋教会)

研究

金哲頭(武庫川教会)
金長寿(福岡教会)

財政部

金広照(横浜教会)
呉重信(西成教会)

伝道事業部

呉勝正(京都教会)
金京子(平野教会)

出版部

呉大錫(東京教会)
李聖愛(福岡教会)

会計監査

金民香(岐阜教会)
裴富吉(西新井教会)

▷連絡事務所

川崎市桜木町1-8
川崎教会内
電話 044(28)2930

예루살렘 로마 파리 런던 주내一부를

대 여행

★13日間、1970年11月2日~11月14日
★¥467,100—

기독신자가 일생에 한번은 가보고 싶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낳으셨든 말구유 십자가의 갈보리 겐세마네 요단강 등 성경의 곳곳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이 걸으신 곳을 나도 걸어보는 여행입니다 그외 구라파의 주요도시를 낱알히 관광하는 대 여행계획에 필 참가하옵기 삼가 바라마지않습니다

海外への
ご旅行は………
株式会社
世界旅行社
本社・大阪市天王寺区筆ヶ崎町17
大阪興銀ビル4 F/TEL 06 (772) 5667
大阪東北営業所・守口市馬場町1730/TEL (991) 3756
Universal Travel Service Co., Ltd.
社長 金 振 玉